

미로 같은 서양화 상징의 비밀

조용진 지음 《서양화 읽는 법》

근대 이전 서양의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문투성이다. 왜 나체가 자주 등장할까. 더구나 한번에 세명씩 그려놓는 걸까. 흔히 보는 정물화에서는 왜 같은 시기에 피는 꽃이 아닌데도 한곳에 모아 그렸을까. 아기 예수는 왜 항상 새끼양을 데리고 있고 때로는 기다란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일까.

신화와 함께 풀어내는 상징

이처럼 수백년 전 서양의 화가들이 그림 속에 알 듯 모를 듯한 상징으로 표현한 비밀스런 기호체계는 최근 발간된 《서양화 읽는 법》에서 차례로 밝혀진다. 이미 수년전 《동양화 읽는 법》을 통해 해박한 지식과 통찰로 그림을 '읽는' 다채로운 미로를 알려 준 저자(서울대 미술과 교수)가 이번에는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시대를 포함한 5,6 백년간 서양미술의 상징체계를 하나씩 풀어 보이고 있다.

저자는 서양미술이야말로 '읽는 그림'이라고 본다. 색깔의 조화나 붓의 터치, 고도와 배치를 따지는 감각적 감상에 그치지보다 '생각하면서 보는 그림'으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 책의 그림 읽는 법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들은 수백년 전 화가들과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 렘브란트의 <파리스의 심판>에는 별거벗은 여인 셋이 서 있다. 모피코트를 걸치거나 귀금속으로 장식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웬 아이가 뒷전에서 놀고 있다. 제목에서 연상되는 '심판자'는 손에 금사과를 들고 있으나 심판자 치고는 행색이 초라하다. 숨어 있는 상징과 기호를 모른 채 이 그림을 들여다본다면 단지 벗은 여인들과 남성, 색채 정도밖에 해석의 단서가 없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그림은 한점뿐이 아니다. 시대를 통해 여러 작가의 여러 작품으로 반복돼 나타난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파리스의 심판>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제우스의 전령 페르세우스로부터 금사과를 받아 비너스에게 주려는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이다. 세 여인은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라고 경연을 벌이는 헤라·아테나·비너스이다.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모피코트를 걸치고 공작새를 데리고 있으면 헤

라다. 신들의 제왕 제우스의 부인이므로 값비싼 옷을 두르고 있다. 괴물 고르곤의 눈까지 빠져 꼬리를 장식한 공작새는 헤라와 함께 프라이드를 상징한다. 갑주로 무장한 여인은 지혜와 전승의 여신 아테나다. 아테나를 묘사한 그림과 조각상에는 투구를 쓰고 메두사의 머리가 장식돼 있는 갑주가 등장하곤 한다. 나머지 한 여인은 당연히 비너스다. 비너스는 케스토스라는 유혹의 허리띠를 두르고, 백조와 비둘기를 총애하며 '사랑'의 아들 큐피드를 데리고 다닌다. 금사과는 비너스의 승리의 증표다.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선 좀더 상세한 신화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잔치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하자, 연회석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써어진 금사과 하나를 던진다. 그 금사과의 주인을 정하기 위해 심판을 해야 했고, 결전에 헤라와 아테나·비너스가 남게 됐다. 심판을 공정히 하기 위해 이 세 여신들을 전령 페르세우스와 함께 이데산으로 보내, 양치기인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한다. 신화는 계속되지만, <파리스의 심판>은 그리스 신화의 한 장면을 온갖 상징을 치밀하게 계산해 표현한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추상명사의 의인화

서양사람들은 추상명사를 의인화하여 그리는 습관이 있다. 서양에서 나체는 신성함을 뜻한다. 나체에 빨간색 천을 걸치게 했다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고결한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더욱 신성함을 강조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옷은 빨간색이며 하늘을 나타내는 청색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진 보라색 역시 고결함을 뜻한다.

숲은 세속의 표현이다. 성은 영주가 사는 곳, 인간세상이며 속된 곳이다. 새끼를 많이 낳는 들토끼는 음욕을 상징한다. 우리에게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이지만 서양에서는 노아의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온 새로 좋은 뜻을 갖는다. 꽃은 부정적인 의미이다. 비너스의 상징인 장미가 꺾어진 채 묘사됐다면 곧 시들어버릴 육체의 헛된 아름다움을 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찬 무상도 (위). 렘브란트 <파리스의 심판>(아래).



타내고자 함이다. 허무를 뜻하는 노란색 들꽃은 '인생의 덧없음'을 말한다. 가뭇 유다는 대개 부정적 의미를 지닌 노란색으로 묘사되며 '호색한'을 표현할 때도 노란색 옷을 입힌다.

서양화에서 정물화는 곧 무상도(無常圖)다. 병에 꽂힌 꽃은 비록 화려하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허무를 암시한다. 그러기에 피는 시기가 다른 장미·백합·붓꽃·튤립을 한데 모아 그린다. '무상'에 대한 생각은 곧 잘 그림으로 표현되곤 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깨지기 쉬운 유리꽃병, 곧 꺼져버릴 파이프의 담뱃불, 죽음과 함께 사라질 세상의 지식을 상징하는 책, 세상의 일락인 악기와 악보는 모두 죽음을 뜻하는 두개골과 함께 헛된 것을 가리킨다.

종교문화의 상징

서양그림에서 종교문화의 상징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신에게 제물로 바쳐진 어린 숫양이 예수와 동일시되는 것은 당연한 듯하다.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아이, 하늘을 뜻하는 작은 새를 잡고 있거나 가시관을 들고 있는 아이, 어린 숫양과 놀고 있는 아이는 모두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소품이다. 서양그림에 많이 나오는 비둘기는 '월계수 가지를 문'

희망과 평화를 상징한다. 날개 돋친 아기천사들은 큐피드가 아니라 케립이라는 1급 천사들이다. 천사의 모습은 젊은 여자의 모습을 띤 사람형상이었으나 점차 어린이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예수의 12사도를 표현하는 상징도 구분이 가능하다. 베드로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의 성경구절처럼 십자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야고보는 순례지팡이와 순교형구인 칼을 지물로 표현한다. 요한의 지물은 두루마리책, 뱀이 있는 잔이며, 마태의 지물은 돈주머니, 펜과 뿔로 만든 잉크병이다.

이렇듯 서양화에 나타나는 상징은 끝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이 상징들은 모두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맥이 닿아 있다. 상징은 다른 상징과 어울려 또다른 기호체계를 낳게 된다. 서양의 화가들은 이 미로같은 기호체계로 온갖 지식과 사고력을 동원해 사물 속에 담긴 우의(寓意)를 표현했다.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자면 당시 화가들의 신비스런 기호체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림 속에 담긴 온갖 상징과 의미를 읽는 일은 단지 서양화 감상의 풍요로운 이상, 그들의 문화·역사와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 김지원 기자

사계절/B5변형/236면/13,000원